경전속 토끼설화

이야기 하나 달로 간 토끼

옛날 베나레스 근처에 여우, 원숭이, 토끼가 살고 있었다. 세 동물은 우정이 지극히 두터워 서로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여겼다. 석제 환인은 이 모양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진실로 이 가운데 보살도를 닦고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시험코자 가만히 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 별 일 없이 잘 있었느냐?"

"예, 우리들은 날마다 숲과 숲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노인께 공양하고 성불을 기약코자…" 토끼는 불속에 들어갔다

"나는 너희들이 매우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듣고 하도 기뻐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나 별안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들 미안하지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지 않으련."

"좋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얼마 후 여우는 물가에 가서 생선을 잡아 가지고 오고 원숭이는 숲 속에 들어가 나무 과실을 따 왔으나 토끼는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 손으로 와 그 주위를 뱅뱅 돌았다. 노인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저대로 생각이 따로 있어 그랬습니다" 하고 옆에 있던 원숭이와 여우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마른나무 한단씩만 구해다 다오."

여우와 원숭이는 곧 나무를 해다 쌓았다. 토끼는 곧 그 나무에 불을 놓고 훨훨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엄숙한 태도로 노인에게 말했다.

"나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원컨대 이 몸을 노인께 공양하고 후세 성불을 기약코자 합니다" 하고 훨훨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때 늙은 사람은 제석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 타다 남은 토끼를 잿더미 속에서 꺼내 들고 탄식했다.

"실로 나는 너희들이 보살행도를 시험코자 왔다. 그러나 지금 토끼의 소신공양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이와 같이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토끼의 자취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할 수 없다. 내 이제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붙여 길이 후세에 본이 되게 하리라" 하고 곧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그려 넣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설하고 그 때의 토끼가 바로 오늘의 나 라고 말했다.

〈본생담〉

이야기 둘 사자를 이긴 토끼의 지혜

어떤 숲 속에 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다. 소담스런 금빛 형형하게 빛나는 눈, 힘이 넘치는 것 같은 굵은 발, 어느것 하나 장부의 기상을 갖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래 그는 넓은 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 크게 소리쳤다.

"어흥"

천하는 바로 그의 것이었다. 누구하나 대꾸하는 자가 없었다.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소리만 들어도 숲 속의 동물들은 모두 제 집으로 들어가 벌벌 떨고 있었다.

"임금님과 똑같은 사자가 우물속에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의 꾀에 속아…

사자는 느릿느릿 숲 속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동물을 차례로 찾아내어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버렸다. 동물들은 밤 늦게 몰래 모여서 사후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한 마리씩 사자에게 자청하여 찾아가기로 했다.

어느날 토끼가 사자에게 가게 되었다. 토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 하면서 걸어갔다. 도중에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그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본 토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자에게 간 토끼는 "임금님과 똑같이 생긴 사자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내가 임금님께 간다고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이 산중의 왕은 나인데 나 이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놈을 내가 혼쭐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화가 난 사자는 당장 토끼에게 그곳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토끼는 발걸음도 가볍게 우물가로 사자를 인도했다.

사자가 높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자기와 똑같은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았다.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도 따라서 똑같이 "어흥"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요동을 하니 물 속의 사자도 똑같이 소리치며 야단을 했다. 화가 난 사자는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그와 싸우려고 그만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육중한 몸이 깊은 못에 잠겨 죽으면서,

"토끼야 날 살려라, 토끼야 날 살려다오."

이 소리를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토끼를 에워싸고 둘러서서 춤을 추고 기뻐하였다.

〈불본행집경〉

◇만봉스님作 '십이지신상' 중 토끼.

기묘(己卯)년 한국불교 소사

■679(신라 문무왕19년) 명랑(明朗)의 건의로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 창건.

■799(신라 소성왕1년) 승려 법수, 당에 들어가 〈신역 후분화엄경 장관외소〉를 얻어 돌아옴.

■919(신라 경명왕3년, 고려 태조2년) △신라, 사천왕사의 소상(塑像)이 가진 활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서(壁書)의 개가 짖으니 3일간 경을 강의하여 기도 △태조, 법왕·자운·왕륜·내제석·사나·천선원·신흥·문주·원통·지장 등 10사(寺)를 도내(都內)에 창건.

■1099(고려 숙종6년) △요나라에서 숙랑(肅郞)으로 하여금 대장경 및 〈제종소초〉 6천9백여권을 보내옴.

■1399(조선 정종1년) △태상왕(太上王), 해인사 대장경 인출(印出)을 지시.

■1459(세조5년) △원각조사 입적 △〈월인석보〉 완성.

■1579(선조12년) △〈선가귀감언해〉 조판 간행.

■1879(고종16년) △1월 본원사 부산별원, 한어학사(韓語學舍) 설립 △2월28일 귀주사(歸州寺) 중수를 위해 내탕전(內帑錢) 3천5백지(紙)와 공명첩(空名帖) 5백장 발급 △3월 석왕사 중수를 위해 공명첩 3백장 발급 △7월12일 만해 한용운,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출생 △8월 이풍인, 박영효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감. 최초의 일본 유학생.

■1939 △3월16일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7회 평의원회 개최 △3월23일 중앙선원(선학원), 조선불교선종 제1회 정기선회 개최 △4월7일 총독부, 종교단체법 제정 공포. 1940년 4월1일 시행 △4월 밤어사 경성포교당,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 개칭 △7월7일 중일전쟁 제2주년을 맞아 전국 각 사암·포교소·신도단체 등에서 무운장구 기원제, 전몰장병 위령제, 황군(皇軍)위문금 모금 등 실시 △7월13일 총독부, 고적발굴 10개년계획 발표 △10월9일 경북 5본산, 은해사 경내에 오산(五山)불교학교 설립 인가 받음 △11월2일 부산사원연합회, 탁발보국대(托鉢報國隊) 조직 △12월8일 (재)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조계학원으로 명칭 변경 신청. 1940년 2월6일 변경 인가.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원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통칭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정육고(정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